



2006년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은 '참새 다기세트'.



문인화가 박태후의 '참새 시리즈'를 새겨 넣은 '참새 반상기 세트'. 2003년 우수디자인 인증 상품이다.

지역 문인화가 박태후의 '참새 시리즈'를 도자기에 새겨 넣은 예술작품, '참새 반상기 세트'는 산업 디자인 전문업체 ㈜인스나인(대표 황인옥)의 대표 상품이다. 예술 작품을 제품에 집어넣은데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우수디자인(GD·Good Design)까지 받는 등 차별화를 부각하면서 백화점 매장에 진열하지 않아도 인소문을 타고 주문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2009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출품됐던 한글 디자인 전문가인 한재준 서울여대 교수의 한글 작품을 생활 도자기에 표현한 '한글그릇씨알'도 GD 인증을 받은 독특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디자인의 시대, 디자인이 제품 차별화 및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제외한 상당수 중소기업들에겐 여전히 뒷전에 밀려있다.

광주·전남 대부분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가격이나 힘든 상황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디자인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 현실이다. 광주가 지속적으로 디자인비엔날레를 개최하는 가하면, 디자인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디자인 불모(不毛)지대나 다름 없다는 말도 여전히 다.

이런 분위기에서 산업 디자인 전문업체 ㈜인스나인의 '디자인 경영'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업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한 디자인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예술 작품을 입힌 제품을 선보여 지역 중소기업 중 가장 많은 우수 디자인 인증을 받는 등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어서다.

30일 인스나인에 따르면 최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2012 대한민국 우수디자인(GD) 상품'에 그림 타일 벽화와 한글사인조형물 등 2점이 선정됐다. 보성군청사 옹벽에 설치한 그림 타일 벽화는 공공 환경 부문에서 조달청장상까지 받았다. 진흥원은 전국 811개 기업 1739개 상품을 대상으로

제품에 예술을 입혔더니...

(주)인스나인 '그림 타일 벽화·한글조형물' GD상품 선정

총 7개 인증... 독특한 디자인으로 차별화·경쟁력 확보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출품작을 도자기에 표현한 '한글그릇씨알'. 2009년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았다.

심사해 615점에 대해서 GD 인증 상품으로 선정했고 이 중에서 70점만 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인스나인은 지난 2003년 이후 모두 7개의 GD 인증을 받게 됐다. 같은 기간 대기업을 제외하면 광주·전남 기업체 중 7개의 GD 인증을 받은 업체는 사실상 인스나인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스나인은 지난 2003년 참새 반상기세트로 우수 디자인(GD) 인증과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 ▲2006년 '참새 다기세트' ▲2007·2008년 예술화장실 ▲2009년 한글그릇씨알 ▲2012년 한글사인조형물, 그림타일 등이 GD 인증을 받는 등 공공 환경 및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확실한 디자인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남도를 대표하는 문화 상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지난 2006년 기업부설 디자인연구소를 개설,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해온 결실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황인옥 대표는 "지역 제조업체들도 제품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디자인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열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거시기, 머시기'라는 주제로 지역 디자인, 국내 디자인 산업과의 연결 고리로서 역할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가을밤 피아노 선율

김연 독주회, 내달 1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김연 독주회가 오는 11월 1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연주 레퍼토리는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62번 작품번호 52', 쇼팽의 '안단테 스피나토'와 '그랜드 폴로네이즈 작품번호 22',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소나타 6번'이다.

김씨는 전남대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전문연주자과정,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최고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현재 전남대 등에 출강하고 있으며 광주피아노 아카데미, 연우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그윽한 묵향 가득

양정호 서예전 내달1일부터 대동갤러리

서예가 양정호씨가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광주 대동갤러리에서 묵향 그윽한 글씨를 풀어놓는다.

고회를 기념해 마련한 서예전으로, 40년 필력의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서는 예·해·행·초서를 포함한 서예작품과 사군자 등 100점을 선보인다.

명인·명문을 여러 서체로 쓴 글씨와 사군자 등을 망라한 전시인 만큼 양씨의 뚜렷한 서예 인생을 한 눈에 들여다보는 자리이기도 하다. 글씨체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글씨에 담긴 철학과 뜻 등 되새겨볼만한 글도 적지 않다.

양씨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심사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정산서예학원 원장으로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문화수도, 링컨센터에서 배우다

광주시, 내년초 미국 주요 문화예술기관 교류 추진

주한미국대사관 공동

광주시가 주한미국대사관과 공동으로 내년 초 미국 선진 문화예술기관의 콘텐츠 개발과 운영노하우를 체험하는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국제교류는 지난 10~11일 '융합'을 주제로 한국의 유명 문화예술가들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미래를 조망한 '2012 아트전시회 및 워크숍' (본보 9일자 보도)에 이은 두번째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콘텐츠와 문화예술교육, 예술경영 등 미국 문화예술기관들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광주시는 이번 교류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뉴욕링컨센터 등 미국 문화예술기관들과의 MOU체결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30일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아트워크숍

을 통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콘텐츠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문화예술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면서 "이 워크숍에 참가한 광주문화재단, 시립미술관 등 시 산하 문화예술기관의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미국 예술기관들의 선진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미국연수의 내실을 위해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일정(8박10일)과 방문기관, 인원 등을 협의 중이다.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따르면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연수를 위해 연수인원을 6~7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뉴욕, 워싱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7개 도시의 주요 미술관과 박물관, 공연장, 문화예술교육센터 등을 연수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 박물관 단지인 워싱턴의 스미



광주시가 미국 문화예술기관들의 선진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는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세계 최대 복합문화예술기관인 뉴욕링컨센터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소니언 인스티튜션을 비롯해 케네디센터, 뉴욕링컨 예술센터, 뉴욕현대미술관,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보스턴 심포니홀, 뉴욕링컨센터 부설 예술교육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연수를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은 현지 일정과 방문기관의 인터뷰 섭외, 통역 및 교통편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아트워크숍을 계기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광주지역 문화예술가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이번 교류프로그램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 (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출몰러스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외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